군산뉴스
www.newsgunsan.com

군산부설초,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연습 중

달리는 즐거움, 함께하는 감동, 아침희망 레이스

2025-03-26 15:26

(+)글자크게 | (-)글자작게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 대회 10km, 5km, Full 코스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약 70명이상의 교육공동체가 참가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록 단축과 완주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아침마다 달리는 즐거움, 함께하는 감동, 활기찬 아침 희망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부설초등학교 아침 풍경은 분주해 군산부설초 녹색어머니들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봉사하고 동시에 방송반 학생들이 들려주는 등굣길 활력 넘치는 음악과 함께 운동장에서 군산새마금마라톤 참가 신청 학생들의 연습이 한창이다.

이들은 오는 4월 6일 열리는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완주 목표를 위해 지난 7일 오전 8시부터 30분 동안 운동장을 자기의 능력에 맞게 달리고 있다.

대회 연습에 모범을 보인 6년 채○○ 학생은 "작년에도 10km 도전을 했었다. 2025 대회에는 기록 단축하기 위해 겨울방학 달림이캠프도 참여하고 선생님, 친구들과 아침 달리기 통해 체력을 키우며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동안 연습을 위해 학교에 일찍 오고 힘든 순간도 많지만, 기록 단축을 위해 참고 이겨내니 조금 자신감이 생겼다. 이번에도 10km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완주하여 기록단축을 꼭 하고 싶다"며 미소를 지었다.

김신철 교장은 "이번 마라톤대회 연습은 학생들과 교직원이 희망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끈기와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 달리기 실천을 통하여 삶에 활력을 더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주 기자 (ju-stone@hanmail.net)